

밀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롬 9:30~33

이방에 미친 구원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네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 가지 질문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의 실패는 곧 하나님의 실패인가?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졌는가?”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대답은 “그렇지 않다”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육신의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들을 통하여 구원은 완성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뭔가 불합리하지 않은가?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는 것은 불의하지 않은가?”하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도 역시 “그렇지 않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에는 불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무라시고 허물하시는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합니다. 한 나라에도 주권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주권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30절과 31절이 이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스라엘에 대한 결론은 상상을 초월한, 무척 놀라운 것입니다. 30절을 통하여 보면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요, 율법이나 말씀도 받지 못한 백성입니다. 약속도 없고 할례도 없으며 조상도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무관한 백성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서 이방인에 대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과 계약도 하고, 약속도 하고, 예배도 드렸지만, 우리는 말씀을 들어본 일도 없고, 약속을 들어 본 일도, 선지자를 가져본 일도 없습니다.

할례는 계약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계약을 하면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계약을 한 후 몸에도 사인을 한 것이 할례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인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십계명도 받고, 율법도 받았습니니다. 그들은 성전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3년 동안이나 돌아다니셨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본 일도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 조상들은 우상을 섬기며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의를 얻었다’는 말은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의를 얻게 되었고,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 재미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라합’입니다. 그 사람은 율법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정탐꾼이 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만 듣고도 내 마음이 녹았다.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上天下地)의 참 하나님이다.” 라합은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부딪힐 돌

반대로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복을 받고, 민족적으로 택함을 받아서 어떤 나라보다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할례도, 약속도, 선지자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성전을 통해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복을 이스라엘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역설이 어디있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역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입니다. 32절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왜 이방인은 구원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은 메시야를 배척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구원을 믿음으로 얻지 않고 행위로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역설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없었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이 행함으로 얻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얻어진다고 하는 것은 로마서 전체의 주장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의로워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말씀입니다. 이것이 역사를 뒤집은 말씀입니다. 구원은 종교적인 행위로 얻어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주제는 로마서 3장 28절에서 계속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4장으로 넘어가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는지를 이야기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수가 많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우리를 불러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니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습니다. 먼 훗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메시야가 태어날 터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가 되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델로 세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노력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스스로 구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인간 안에 없습니다.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인간에게 영생이 있다면 그냥 오래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죽지 않고 끝까지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진정한 구원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올 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구원할 사람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은 그 스스로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선물이다

구원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밖에서 와야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이 아닌 절대자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돈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지식이나 행위로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절대자가 조건없이 내게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하여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본질이요, 두 번째는 구원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 나서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조건없이 거저 베푸신 은혜입니다.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허우적거립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구해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줄 수도 있고, 구해주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무조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라고 기억합니다. 제게 물에 빠져 죽을 뻔 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영을 못했기 때문에 물을 잔뜩 먹고 기절했습니다. 그 곁에는 조그마한 고깃배가 있었는데, 저는 그만 정신을 잃고 그 배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 해변에는 조그마한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 사는 할머니가 바느질을 하다가 눈이 침침해서 문을 열고 바람을 쐬다가 어떤 소년이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공은 낮잠을 자고 있더군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소년이 죽어가기까 어서 구하라고 아우성을 쳤답니다. 그렇게 해서 건져진 것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물을 토할 때야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이미 그 때 죽었습니다. 저와는 상관없는 어떤 할머니가 제가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질러서 건져내 준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제가 살아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기절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조건 없이 죽어가는 어린 소년을 건져

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입니다. 민족적으로도 구원받을 길이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또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제가 물에 빠져 있을 때, 줄이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는 저 사람을 모르는데 이 줄을 잡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고 고민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할 것도 없이 줄을 꼭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줄 때 잡아야 합니다. 잡지 않으면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줄이 없든지, 잡지 않든지 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한 구원의 줄이 던져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것을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을 받은 나는, 나를 구해준 사람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감사가 없다면 구원의 감격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감격이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행위로는 안된다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은 선물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받은 것이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20년 동안 셋방살이를 하던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15평짜리 아파트를 주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그날 밤에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벽도 만져보고, 바닥도 만져보느라 잠을 못잘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감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5평짜리 아파트가 아니라 영원히 살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랑하지 못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뽐내지도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자기주장이 많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토록 놀라운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 더 문제였습니다. 이방인들은 오히려 아무 것도 받은 것이 없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선지자도 없으니 이방인의 마음은 가난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소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교만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부끄럽기만 한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소유는 사람을 불행하게 합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마음은 가난해지셔야 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건강도, 지식도, 자녀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부터는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소유한 많은 종교적인 혜택과 종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했기 때문에 ‘참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금식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또 소리 내어 기도하고 기도할 때의 모양도 우아하게 했습니다. 율법을 외우고 그대로 행하면 구원을 받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했습니다. 고개도 못 들고, 헌금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라고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죄인 중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누구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32절 끝부분에 ‘부딪힐 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돌에 부딪힌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길을 가다가 책상 모서리나 돌부리에 부딪히고는 무척 아파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은 돌맹이를 차는 사람과 같습니다.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더욱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 할수록 신앙이 없어집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으로 나아가는 것은 돌맹이를 차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전부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한 3년 정도 지나면 모두 율법으로 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일수록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많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없고 감격도 없는 것은 율법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33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은 이 돌에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십시오. 첫 은혜, 첫 감격,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때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받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매우 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도 않았을 뿐더러 중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은혜는 없어지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만 보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보니까 은혜가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얼굴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은혜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돌에 걸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첫 은혜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물에 빠졌던 그 때로 돌아오십시오.

33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러분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율법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로 나아가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으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율법에서 돌아오십시오. 행위에서 돌아오십시오. 종교적인 습관에서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단 한번 습관

이 되면 그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합니다. 종교적인 모든 행위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돌아올 때, 그 민족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행위로 가지 말게 하옵소서.

공로로 가지 말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